

## 짧은 hospice 봉사 생활을 돌아보며

김 미

아가다 · 대전 성모병원 자원봉사자

올타리장미 넝쿨이 키 큰 전나무를 타고 올라 나무 곳곳에 아름다운 꽃송이를 피워놓은 모습이, 마치 푸른 전나무에 빨간 꽃송이를 매달아놓은 장미의 자태가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환자들과 만남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감성이 풍부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아직은 봉사를 시작하지 이년이 조금 넘은 미숙한 초보자이지만 투병하시는 환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건네야할지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지만 방문 전에는 항상 경당에 들려 주님 앞에 기도로 무장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병실 앞에서면 어느새 긴장해진 자신을 봅니다. 경험이 많은 선배 봉사자의 유연하고 능숙한 모습을 보면 부러움을 느낍니다. 교육 때 환자에게는 곁에 있어주기만 하여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이론과는 달리 무언가를 해드리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했다 는 자책감으로 우울해 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고백소에서 신부님으로부터 혼쫌이 난적도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해주었다는 자기 만족감을 기대하지 말라" 고...

"우리는 그저 환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신부님 말씀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질없는 나의 욕심 이였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하느님의 도구로 쓰여짐을 깨달으면서 마음속의 두려움과 긴장에서 해방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봉사였지만 생각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를 차갑게 거절하던 폐암환자였던 무속인 (후에 대세 받고 선종 하심)

혼수 상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자랑하던 유방암 자매 님,

평생을 연구생활에 헌신한 박사님, 장암으로 입원하셨던 기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뜻깊은 피정 기간 이었다고 고통을 감내 하시던 모습, 그분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모습이 곱고 빛이 났으며 평화로웠고 마치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봉사에 열심인 모든 봉사자 여러분! 넝쿨 장미는 올타리에서만 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 큰 전나무 위에서 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봉사자들 가슴마다 에도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이 빛과 향기가 고통으로 힘든 환자와 가족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져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정원을 이 땅에 가꾸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이오나 당신께 온전히 봉헌하는 하루를 살아 당신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옵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살아 계신 주님을 뵈옵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대전 성모병원 호스피스 과는 지난달 5월13일-14일 1박2일(20시간) 동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에게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인간 관계 훈련을 실시하였다.(지도: 김경렬 장소: 봉사자 별장)

자원봉사자들은 밤잠도 반납하고 새벽 4시까지 그 열기가 대단하였다.

첫째 날은 정서 표현 훈련으로 의사소통의 기본을 숙지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찾아내면서 숨은 능

력을 발견하고 자존감과 가치관을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고 생애전반의 희로애락 나눔을 통해 서로 수용해주고 지지 받으며 용기와 자신감이 충전되고 긍정적 사고와 적극성이 배양되는 시간이었으며 새벽 4시까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구성원 서로가 따뜻한 사랑을 교류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며 주관과 철학이 확립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끝으로 피드백을 통하여 서로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감과 충만한 행복감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인간관계 훈련을 끝내고 각자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발표하였다.

- 평소 느끼지 못하였던 솔직한 정서표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 소심하고 위축되었던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으며 적극적인 행동과 긍정적 사고로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
- 세상 보는 눈이 새롭고 밝고 즐거운 마음이다.
-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이 되어 이해하며 살겠다.
-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용기와 자신감이 생긴다
- 굳었던 마음속이 부드러워졌으며 진정한 봉사자가 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느낀다.(관심과 배려, 사랑, 가슴으로의 만남 등등...)
- 평생 쌓인 체증이 뺨 풀리고 후련함을 느낀다.

## 미소 속의 행복

미소는 힘들이지 않고  
주는 이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도  
받는 이를 부유하게 해줍니다.  
미소는 잠깐 밖에 지속하지 않지만  
그 기억은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미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미소조차 짓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미소는 집안에 행복을 남게 하고  
일 가운데 지탱이 되어주고  
모든 고통의 치료제가 됩니다.  
미소는 피로를 풀어주고  
실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미소는 사거나 벌리거나 흠칠 수 없습니다.  
미소 짓는 그 순간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미소지어주기를 바라던 사람이  
당신에게 미소 지어 주지 않을 때  
당신은 너그러이  
그 사람에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미소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만큼  
미소가 필요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